

각자의 빛, 함께 그리는 미래!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

2026. 6.



경상남도교육청 | 정책기획관

■■■■■ 목 차 ■■■■■

I . 목적	1
--------------	---

II . 조사 개요	1
------------------	---

III . 문항별 조사 및 분석 결과	2
----------------------------	---

IV . 활용 계획	26
------------------	----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

 정책기획관(학교회계담당)

I 목 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정 운영
- 예산편성 방향 및 우선순위에 주민의 의견을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 의견수렴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

II 조사 개요

- 설문 조사 실시
 - (기간) 2026. 5. 11.(월) ~ 6. 5.(금) [26일간]
 - (대상)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등 경남도민 누구나
 - (내용)
 - 경남교육정책, 교육복지, 환경개선 분야 등 우선 투자 방향 및 중점 지원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
 -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도와 주민참여예산제 인지도 조사
 - 예산 편성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 조사
 - 설문문항 구성

구분	기초자료	예산 우선 투자 분야		참여예산	기타의견 (서술형)	계
		정책과제	예산지원			
일반인용	5문항	11문항	-	1문항	1문항	18문항
학생용	3문항	-	7문항	1문항	1문항	12문항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 조사 결과

- (설문응답) 총 2,805명(학생 731명, 학부모 1,422명, 교직원 622명, 도민 30명)
 - ※ 경남도민 3,196,632명 중 총 응답자수 2,805명으로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pm 1.85\%$
- (조사결과) 「문항별 조사 및 분석 결과」 참조
 -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유레카 설문조사 통계분석 리포트에 기초하여 작성

Ⅲ 문항별 조사 및 분석 결과

[일반성인]

1. 일반인 응답자 현황 (설문조사 5문항)

1) 총괄

-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일반 성인은 2,074명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연도별 추이 : '24년 2,922명 → '25년 2,261명 → '26년 2,074명

- 교육정책 및 사업집행의 결과를 직접 체감하는 학부모의 응답률이 68.56% (1,422명)로 가장 높음
- 전년 대비 학부모('25년 1,236명 → '26년 1,422명) 응답자 는 늘어났으나, 교직원('25년 946명 → '26년 622명)과 일반도민('25년 85명 → '26년 30명) 응답자가 감소하여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특히, 일반도민 응답자 수가 매우 적은 만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 방안 마련이 요구됨

2) 상세 현황

○ 연령 및 성별 현황

- ❖ [표 1]에 따르면 40~50대, 여성이 1,297명 (62.54%)로 가장 많이 참여함
- ❖ 연령은 ① 40대 53.47% > ② 50대 24.54% > ③ 30대 17.70% > ④ 20대 2.21% > ⑤ 60대 이상 2.17% 순으로 학부모의 주 연령대인 30~5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음

[표 1] 연령 및 성별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명)
남	11(0.53%)	68(3.28%)	175(8.44%)	146(7.04%)	27(1.30%)	427(20.59%)
여	33(1.59%)	299(14.42%)	934(45.03%)	363(17.50%)	18(0.87%)	1,647(79.41%)
합계	44(2.21%)	367(17.70%)	1,109(53.47%)	509(24.54%)	45(2.17%)	2,074(100.00%)

○ 신분(직업) 및 소속별 현황

- ❖ [표 2]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가 1,422명(68.56%)으로 가장 많으며, 특히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가 1,31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3.50%를 차지함
- ❖ 학부모 응답자('25년 1,236명 → '26년 1,422명)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교직원('25년 946명 → '26년 622명) 및 일반도민('25년 85명 → '26년 30명) 응답자가 감소하였음

[표 2] 신분(직업) 및 소속별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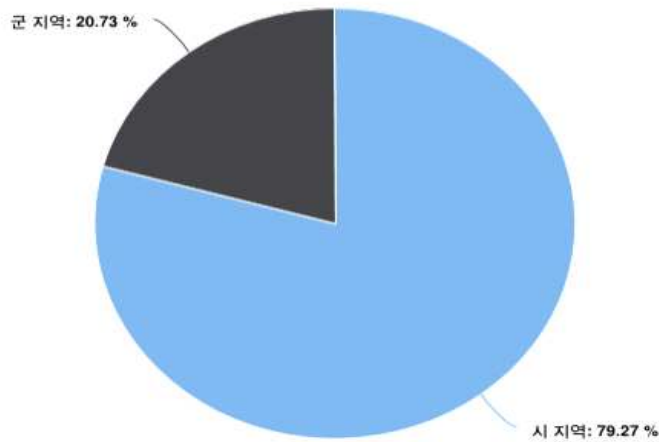
구분	학부모	교직원	도민	합계 (명)
유치원	84 (4.05%)	27 (1.30%)	0 (0.00%)	111 (5.35%)
초등학교	587 (28.30%)	224 (10.80%)	5 (0.24%)	816 (39.34%)
중학교	348 (16.78%)	110 (5.30%)	1 (0.05%)	459 (22.13%)
고등학교	382 (18.42%)	137 (6.61%)	2 (0.10%)	521 (25.12%)
특수학교	18 (0.87%)	20 (0.96%)	0 (0.00%)	38 (1.83%)
교육행정기관	0 (0.00%)	92 (4.44%)	1 (0.05%)	93 (4.48%)
기타	3 (0.14%)	12 (0.58%)	21 (1.01%)	36 (1.74%)
합계	1,422 (68.56%)	622 (29.99%)	30 (1.45%)	2,074 (100.00%)

※ 학부모의 소속은 자녀(경남 학교) 학교급별로 구분

○ 거주지별 현황

- ❖ [표 3]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시 지역 거주자 1,644명(79.27%)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 응답 비율은 430명(20.73%)에 그침
- ❖ 시·군간 인구 규모 차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지역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군 지역의 설문조사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표 3] 거주지별 응답자 현황



2. 교육정책 응답 현황 (객관식 11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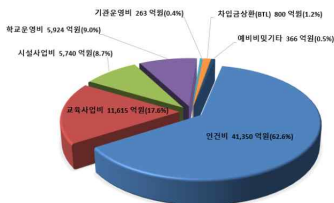
<2026년 경남교육청 주요 교육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원, %)

정책사업명	예산액	비율	정책사업명	예산액	비율
인적자원운용	382	1.47	보건급식	3,055	11.78
교수학습활동지원	3,023	11.66	학교재정지원관리	10,532	40.62
교육복지	4,247	16.38	학교시설여건개선	4,691	18.09
주요 교육사업 예산총액				25,930	100

※정책사업별 주요 추진내용

- 인적자원운용: 교직원 연수, 인사, 복지 등
-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독서교육, 진로진학교육, 문화체육예술, 학력신장, 학교정보화 등
- 교육복지: 취약계층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누리과정, 교과서 및 교복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등
- 보건급식: 급식비지원,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보건, 산업안전, 위생관리 등
- 학교재정지원관리: 공·사립학교 운영비 지원 등
- 학교시설여건개선: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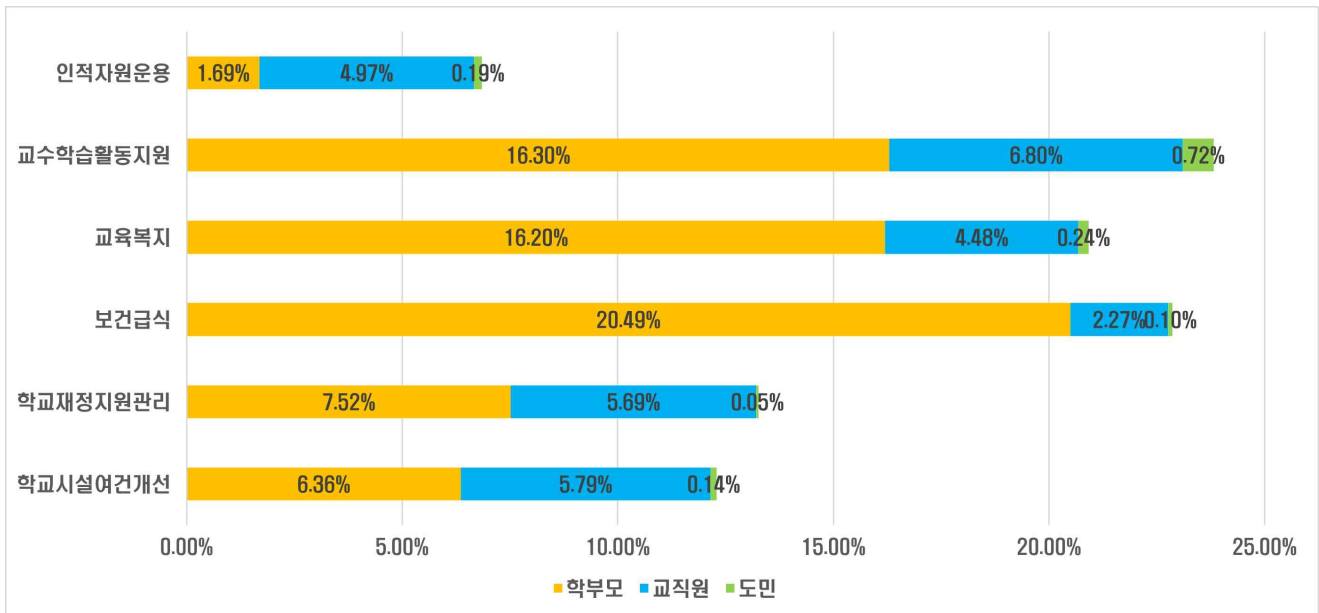


☞※※2026년 경남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누리집의 상단 **교육청이용안내** 메뉴에서 **경남 교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7년도 예산지원 확대 필요 사업

- ❖ [표 4]를 살펴보면 내년도에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책사업으로는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이 전체의 23.82%를 차지하여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였고, ‘보건급식’ 사업이 22.85%로 그 뒤를 이음
- ❖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6.85%를 차지해 예산 확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 다만, 응답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교직원 그룹은 ‘학교재정지원’ 및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 확대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한 반면, ‘보건급식’ 사업의 필요성은 낮게 평가하였음
반면, 학부모 그룹은 ‘보건급식’ 사업을 예산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는 등 구성원 간 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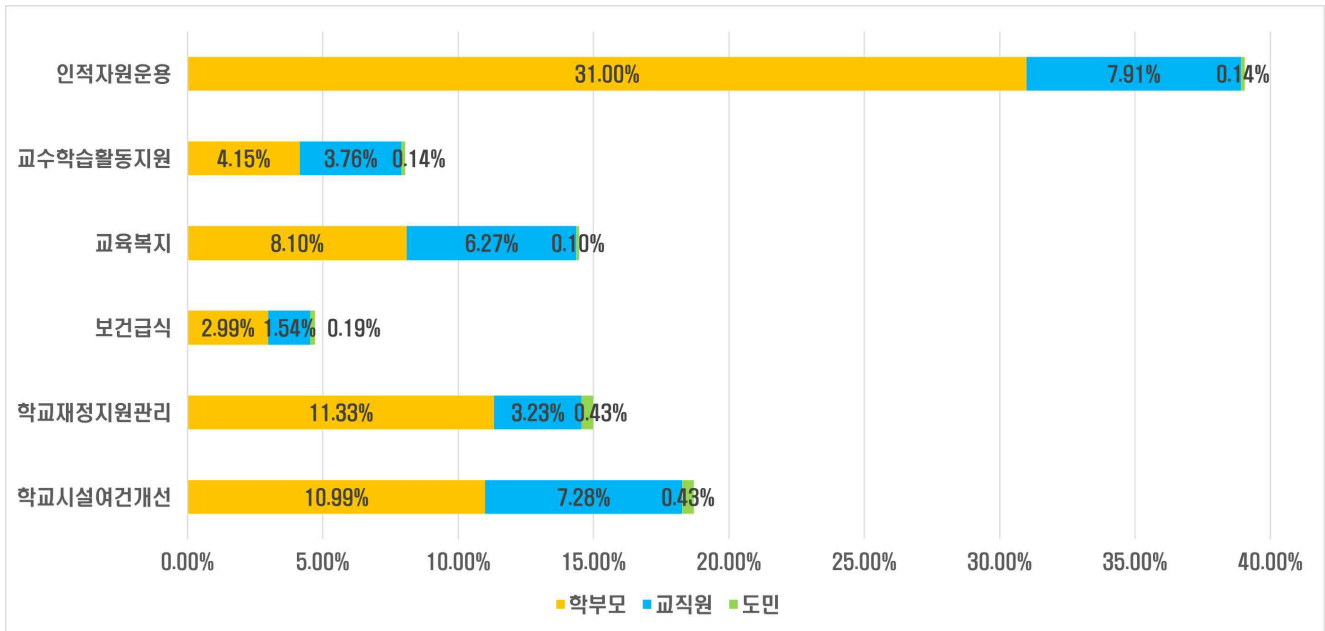
[표 4] 구성원별 예산지원 확대 필요 사업 응답 현황



2) 2027년도 예산지원 축소 필요 사업

- ❖ [표 5]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39.05%가 ‘인적자원운용’ 사업을 예산 부족 시 우선적으로 축소할 사업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시설환경개선 (18.71%)’ 사업과 ‘학교재정지원관리(15.00%)’ 사업 순으로 응답함
- ❖ 반면, ‘보건급식’ 사업에 대한 예산 축소 필요성은 4.73%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학생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축소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 이러한 결과는 예산 확대 필요 사업 조사에 ‘보건급식’ 사업의 지원 확대 요구가 높고 ‘인적자원운용’ 사업의 확대 요구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며, 응답자들이 학생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체감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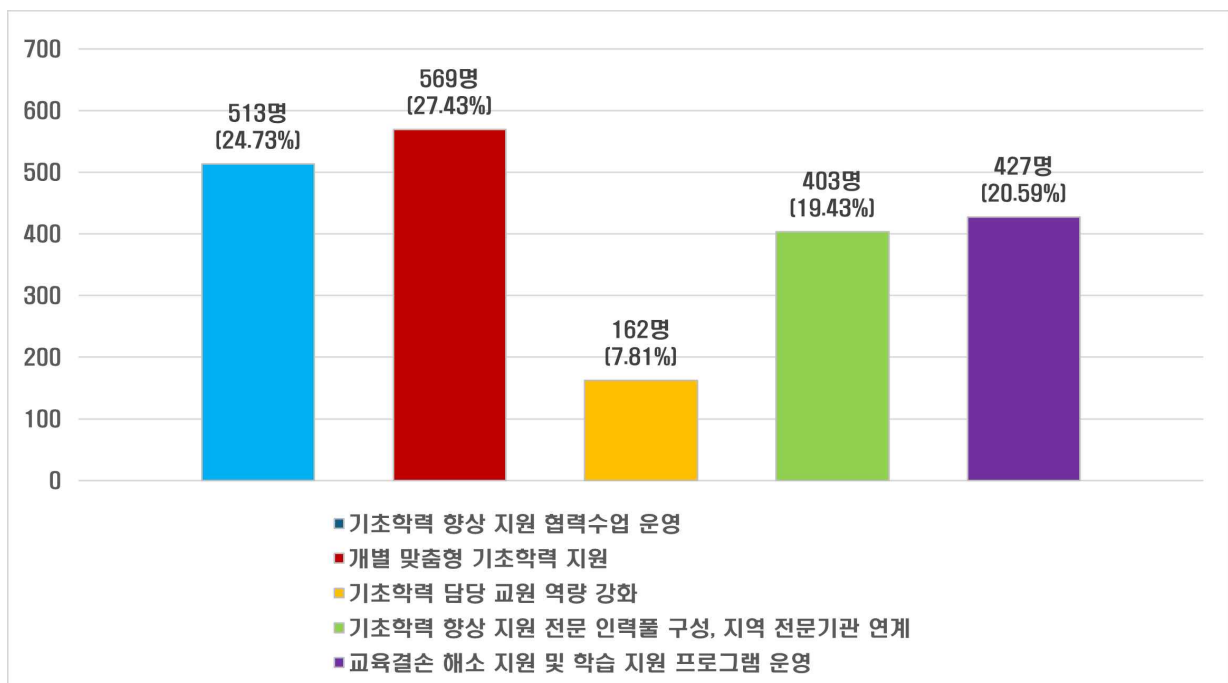
[표 5] 구성원별 예산지원 축소 필요 사업 응답 현황



3)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우선 지원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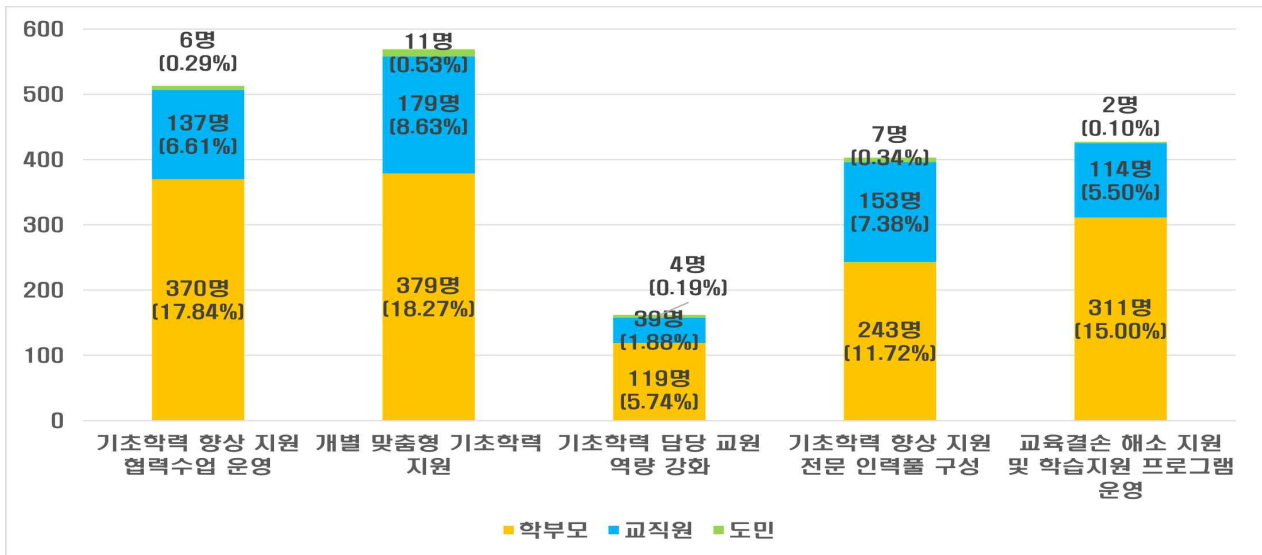
- ❖ [표 6-1]에 따르면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는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분야가 **27.43%**를 차지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임
- ❖ 다음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협력수업 운영 > 교육결손 해소 지원 및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전문 인력풀 구성 > 기초학력 담당 교원 역량강화 연수** 순으로 나타남

[표 6-1]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 응답 현황



- ❖ [표 6-2] 구성원별 응답 현황을 보면 모든 그룹에서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학력 향상 지원 수업 운영**’, ‘**교육결손 해소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을 보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직접적인 학습 지원 확대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기초학력 담당 교원 역량 강화**’는 모든 구성원에서 낮은 응답률을 보여 교원 연수나 역량 강화보다는 학생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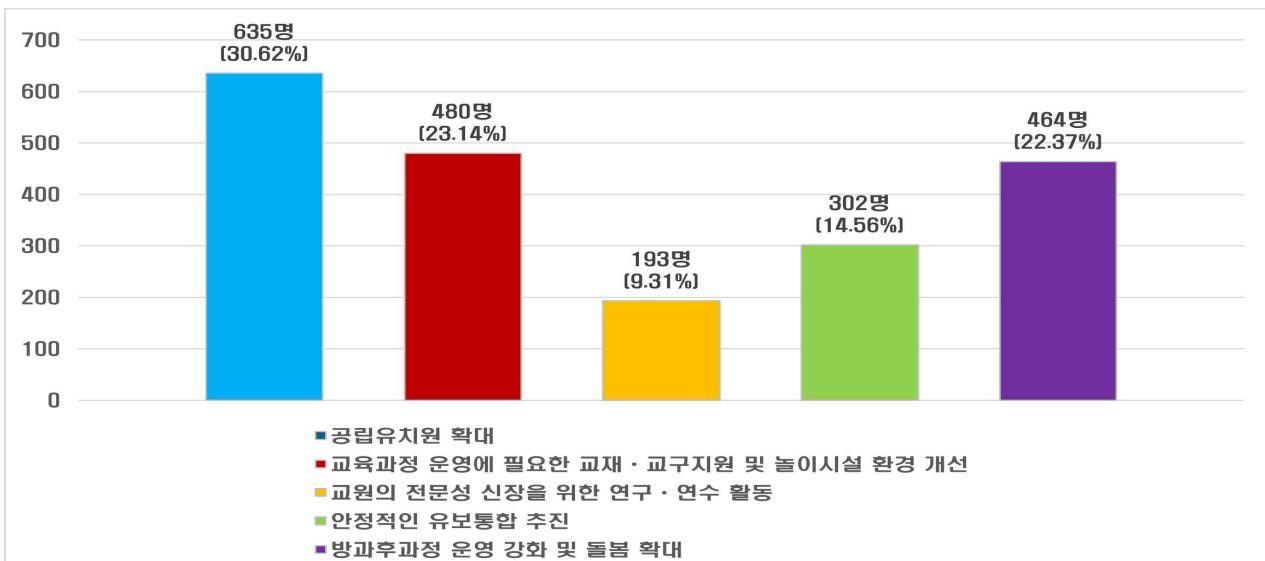
[표 6-2]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 구성원별 응답 현황



4)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해 우선 지원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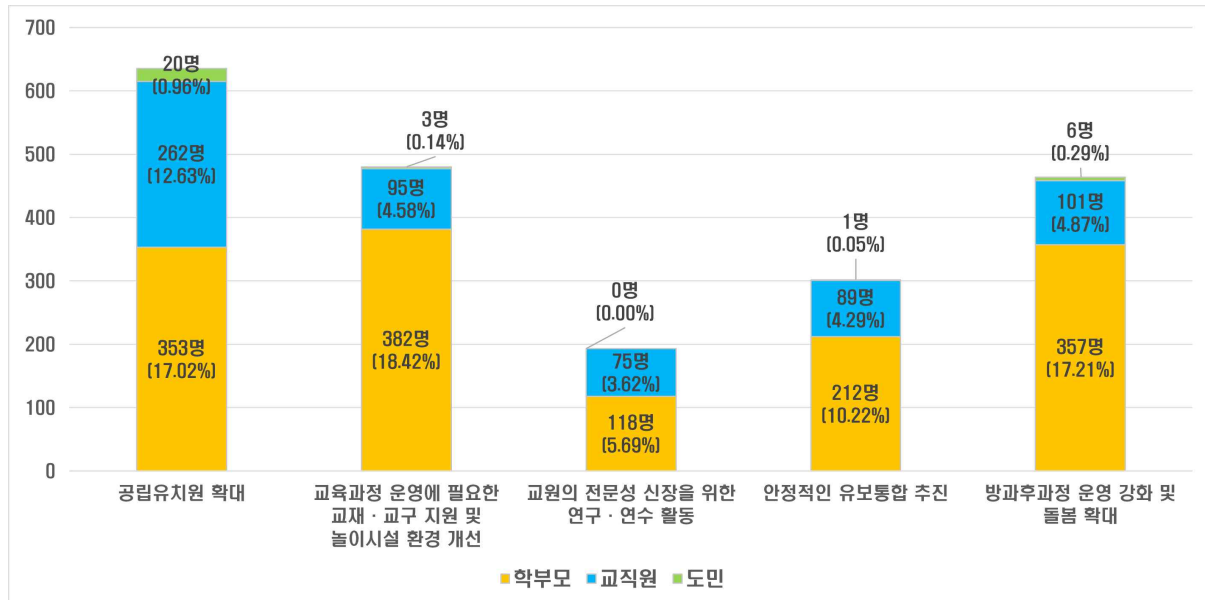
- ❖ [표 7-1]을 보면 유치원 교육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로 ‘**공립유치원 확대**’가 30.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재·교구 지원 및 놀이시설 환경개선**’, ‘**방과후과정 및 돌봄 확대**’도 높은 필요성을 보였음
- ❖ 반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은 다른 분야에 비해 응답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7-1]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 응답 현황



- ❖ [표 7-2] 구성원별 응답을 보면 모든 그룹에서 ‘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부모 그룹에서는 ‘교재·교구 및 놀이터 환경개선’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 ❖ 특히 교직원 그룹 중 ‘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 응답한 비율은 42.12%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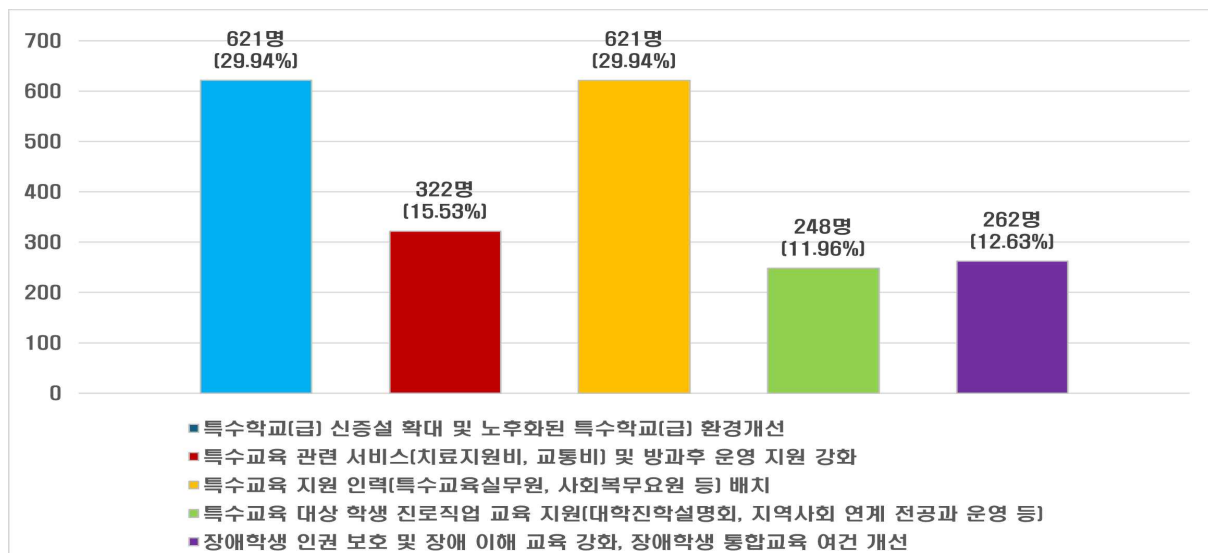
[표 7-2]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 구성원별 응답 현황



5)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우선 지원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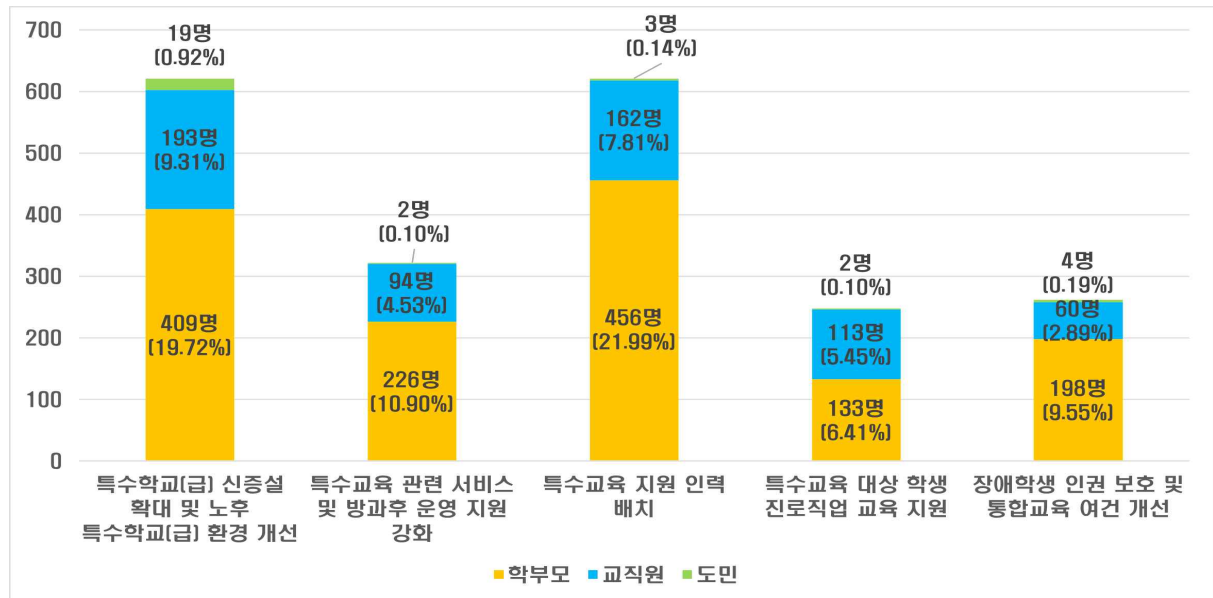
- ❖ [표 8-1]을 보면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로는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및 노후화된 특수학교(급) 환경개선’과 ‘특수교육 지원 인력 배치’가 29.9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방과후 운영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장애 이해교육 강화, 통합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직업 교육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항목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임

[표 8-1]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 응답 현황



- ❖ [표 8-2]를 보면 모든 구성원 그룹에서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및 노후 특수학교(급)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 다만, **학부모 그룹**에서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 배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분야로 응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 지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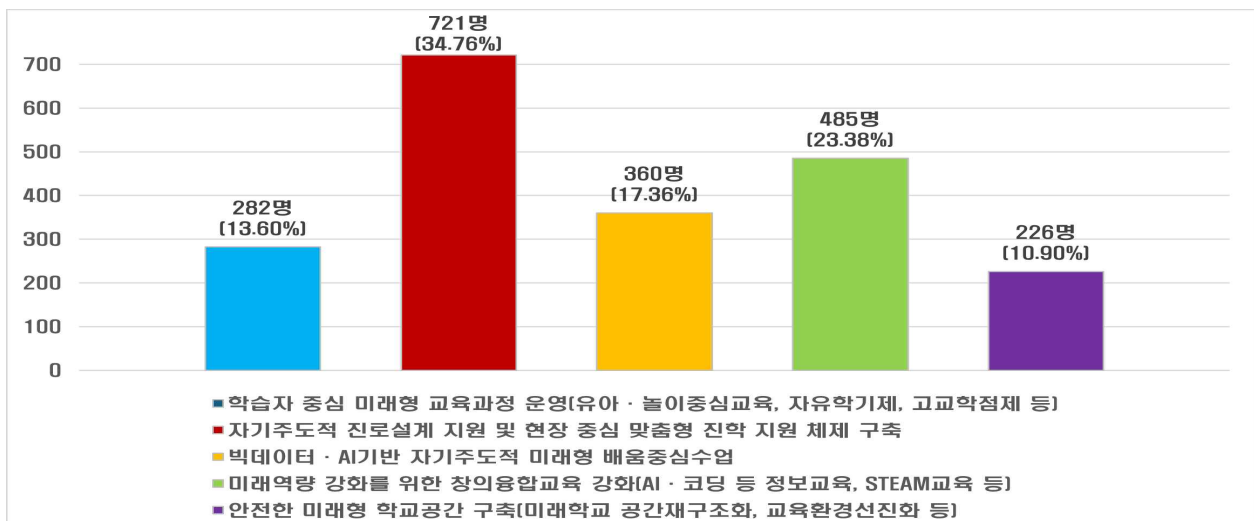
[표 8-2]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 구성원별 응답 현황



6)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지원할 분야

- ❖ [표 9]에 따르면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지원해야할 분야로는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진학 지원 체제 구축**’이 34.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진로·진학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 다음으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융합교육**’이 23.38%를 차지하여,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 함양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구성원별 응답 경향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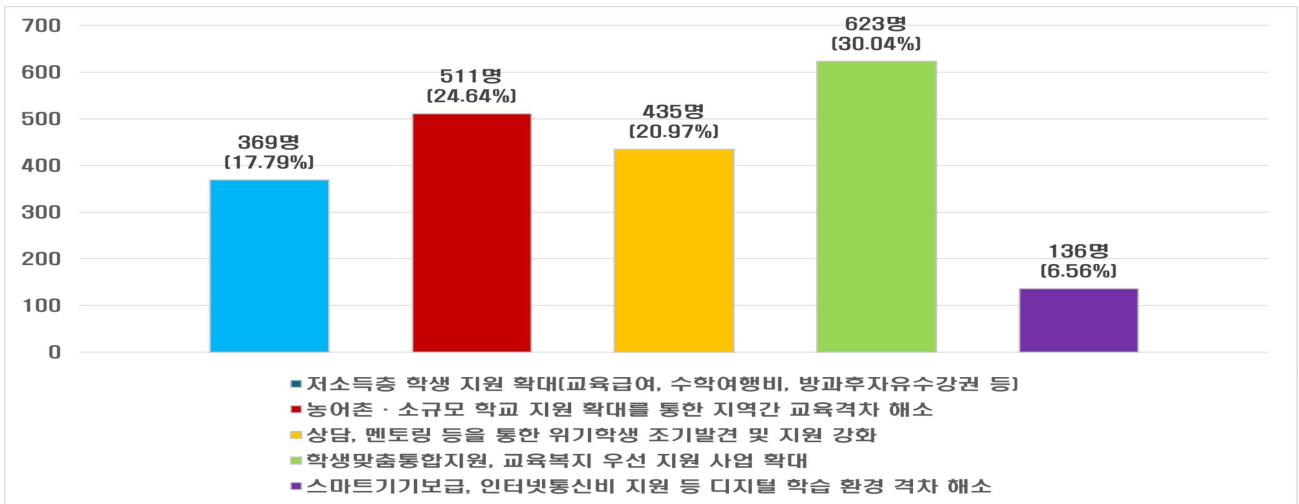
[표 9]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우선 지원분야 응답 현황



7)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지원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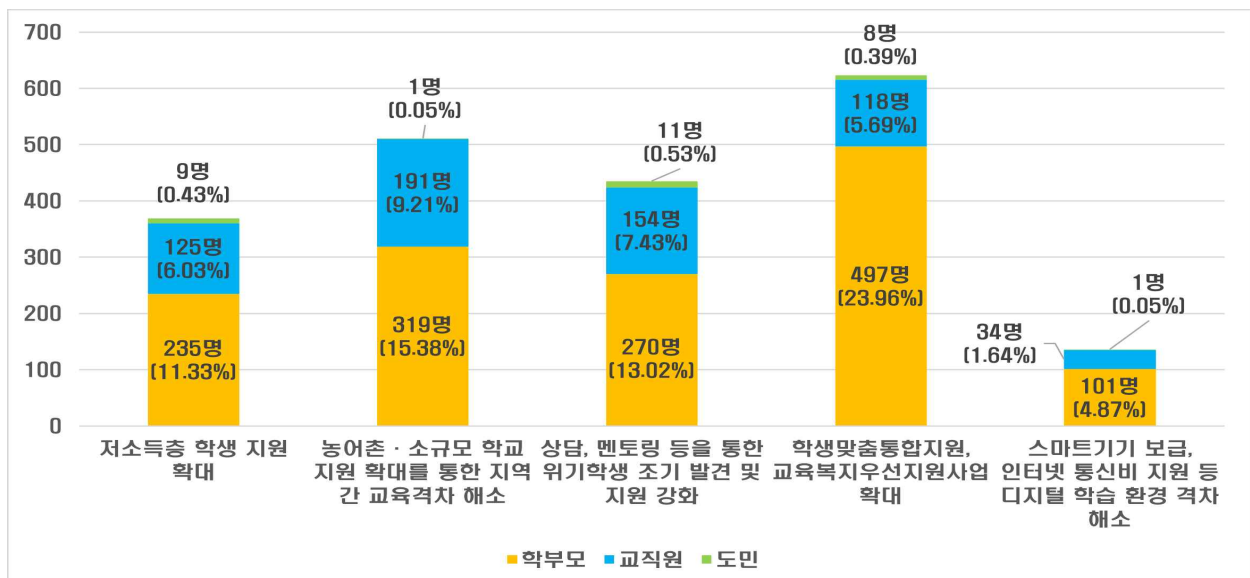
- ❖ [표 10]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 추진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확대’가 30.04%를 차지해 가장 필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남
- ❖ 다음으로는 농어촌·소규모 학교 지원 확대 > 상담, 멘토링 등을 통한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지원 >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학습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보급,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 지원분야 응답 현황



- ❖ [표 10-2]에 따르면 학부모 그룹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확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분야로 응답하였음
- ❖ 교직원 그룹은 ‘농어촌·소규모 학교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확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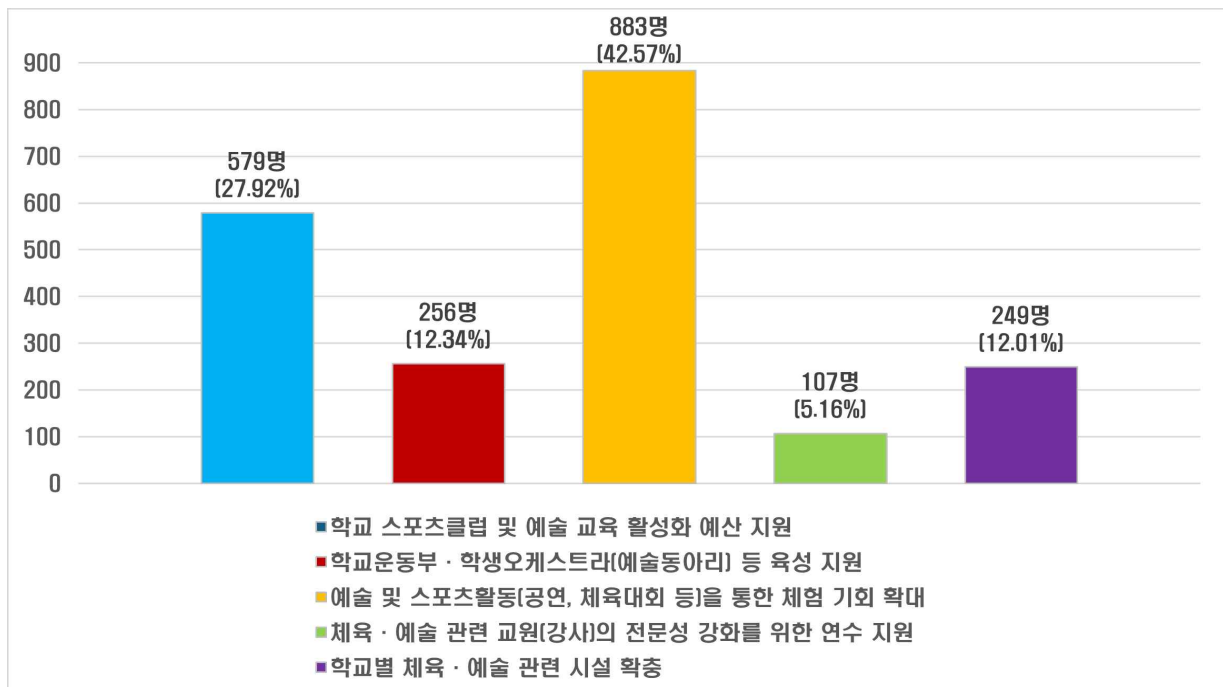
[표 10-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 지원분야 구성원별 응답 현황



8)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원할 분야

- ❖ [표 11]을 보면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술 및 스포츠활동을 통한 체육·예술 체험 기회 확대’가 전체 응답의 42.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교 스포츠클럽 및 예술 교육 활성화 예산 지원’이 27.92%로 그 뒤를 이었음
- ❖ 반면, ‘체육·예술 관련 교원(강사)의 전문성 강화 지원(5.16%)’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여, 응답자들은 교원 역량 강화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활동 기회 확대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구성원별 응답 경향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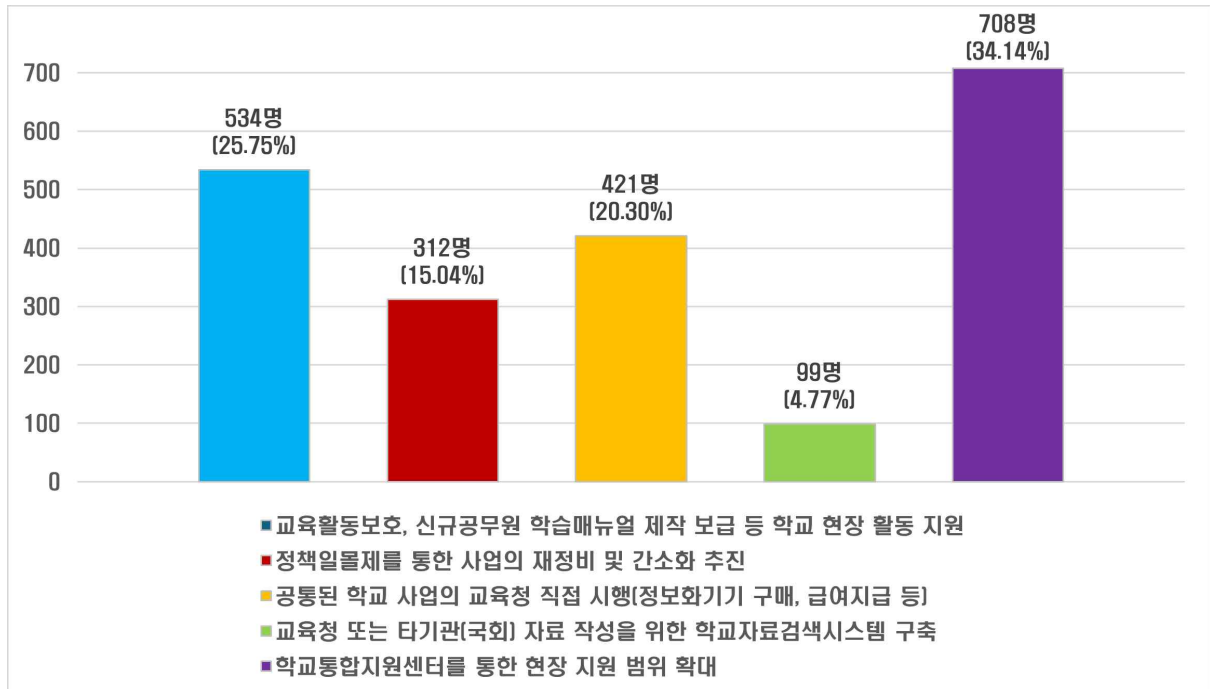
[표 11]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선 지원분야 응답 현황



9)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우선 지원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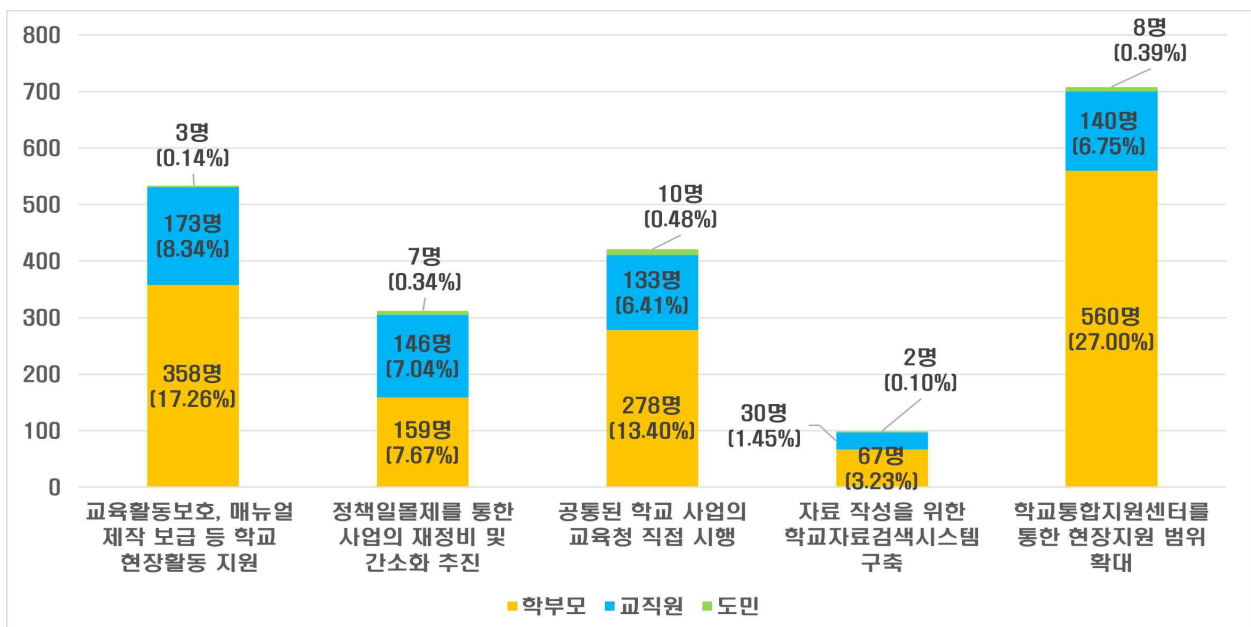
- ❖ [표 12-1]을 보면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우선적인 지원 분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지원 범위 확대’ 분야로 전체 응답의 34.14%를 차지함
- ❖ 다음으로는 ‘교육활동보호 등 학교 현장 활동 지원(25.75%)’, ‘공통된 학교 사업의 교육청 직접 시행(20.30%)’ 순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업무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반면, ‘학교자료검색시스템 구축’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여 시스템 구축 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1]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우선 지원분야 응답 현황



- ❖ [표 12-2]를 보면 학부모 그룹에서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지원범위 확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육활동 보호·신규공무원 학습 매뉴얼 제작 보급 등 학교현장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 교직원들은 '교육활동 보호·신규공무원 학습 매뉴얼 제작 보급 등 학교현장활동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분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책 일몰제를 통한 사업의 재정비 및 간소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 ❖ 모든 그룹에서 '자료 작성을 위한 학교자료검색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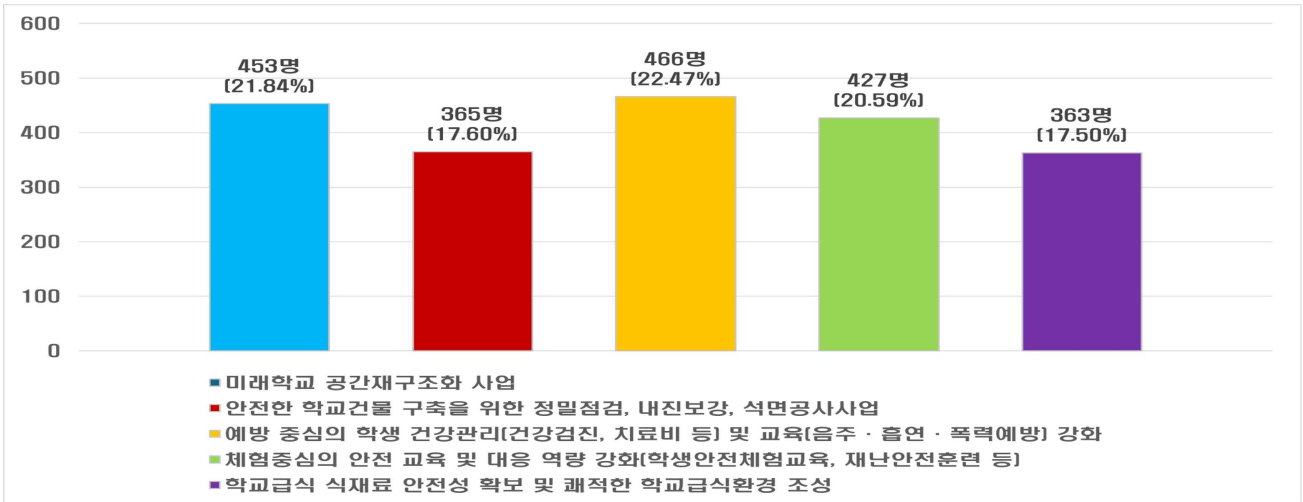
[표 12-2]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우선 지원분야 구성원별 응답 현황



10)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우선 지원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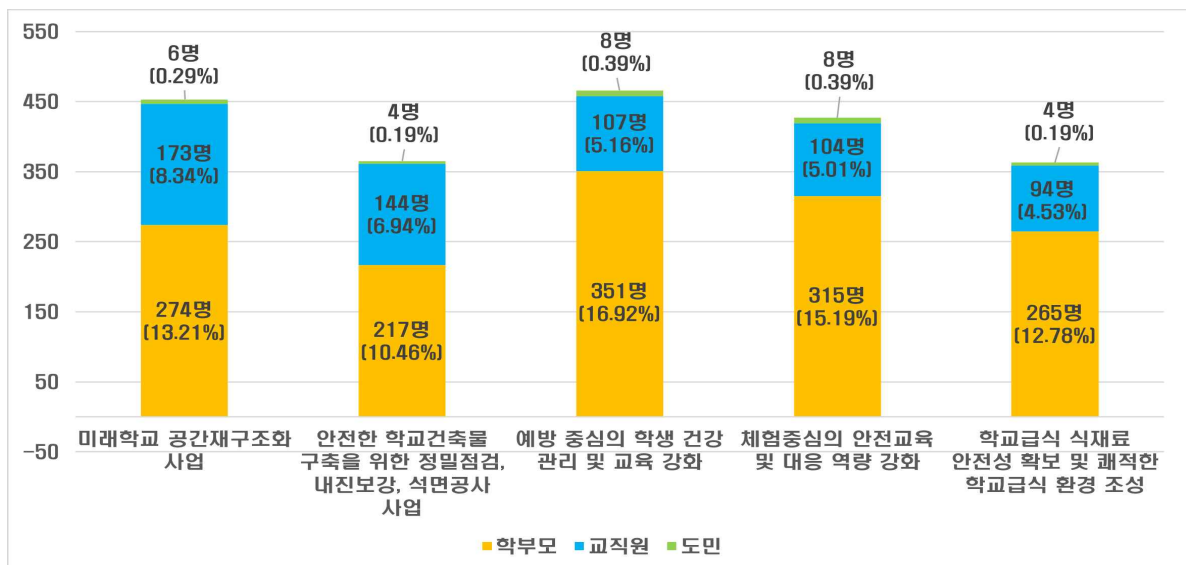
- ❖ [표 13-1]를 보면 ‘예방 중심의 학생 건강관리 및 교육 강화’가 22.4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21.84%)’과 ‘체험중심의 안전 교육 및 대응 역량 강화(20.59%)’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수요가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1]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 응답 현황



- ❖ [표 13-2]를 보면 학부모·도민 그룹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학생 건강 관리 및 교육 강화’와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 및 대응 역량 강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분야로 인식함
- ❖ 반면, 교직원 그룹은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안전한 학교 건축물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함
- ❖ 학부모와 도민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교직원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교육환경과 시설 안전성 확보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구성원별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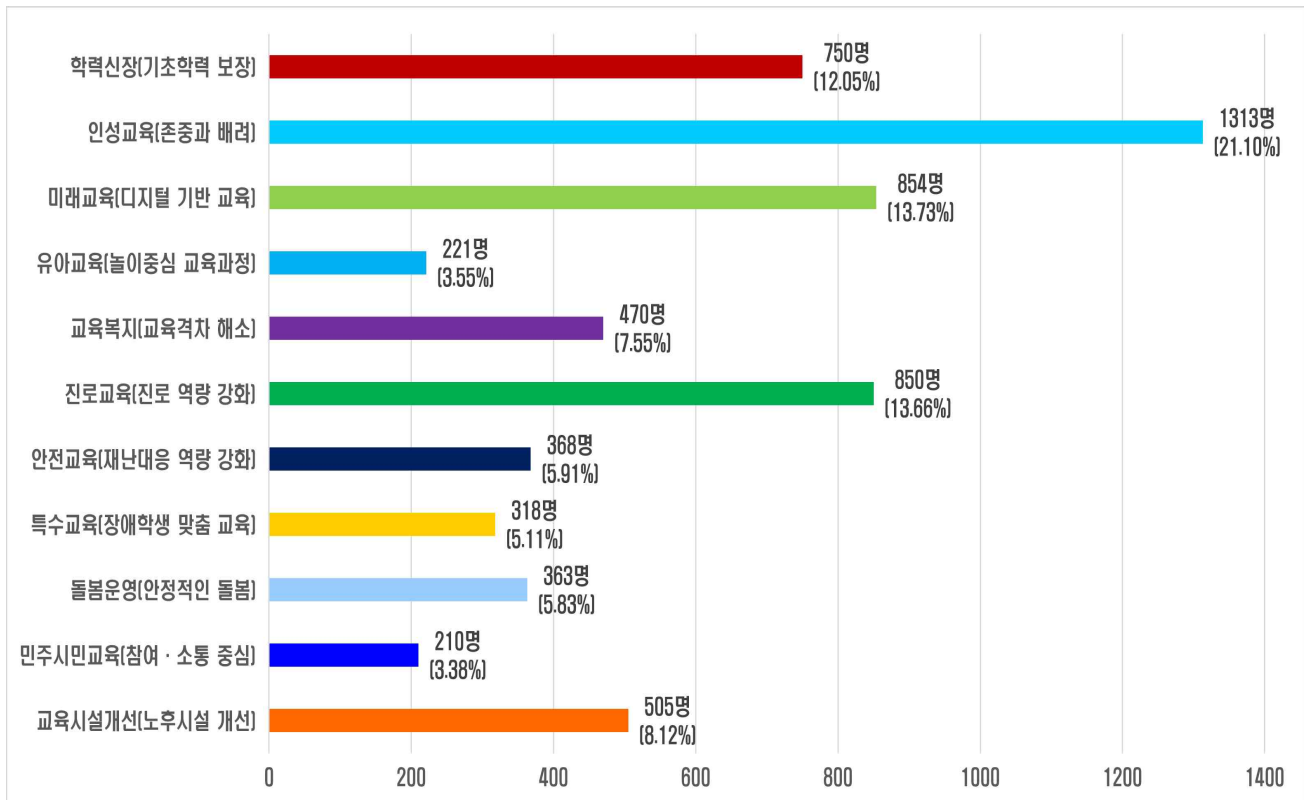
[표 13-2]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 구성원별 응답 현황



11)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분야

- ❖ [표 14]를 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분야로 ‘인성교육(21.1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미래교육(13.73%)’과 ‘진로교육(13.66%)’, ‘학력 신장(12.05%)’ 순으로 응답하였음
- ❖ 본 문항은 최대 3개까지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총 6,222건의 응답이 집계됨

[표 14]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예산 지원할 분야 응답 현황



3. 2027년 예산편성 희망사업 의견수렴 결과 (주관식 1문항, 서술식)

- ❖ 의견 수렴 분석 결과 기존 사업의 확대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교육 강화, 학교시설 개선, 진로체험 확대,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또한 돌봄교실 운영 확대와 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돌봄사업 축소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이 나타남.

◆ 신규사업 신설 또는 확대, 기존사업 축소·통합·폐지, 기타 분야(요약)

분야	의견 내용
신설 또는 확대를 원하는 사업	▶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 통합교육 내실화(지원인력의 장애 이해도 부족)

분야	의견 내용
	▶ 진로교육 지원 확대 - 공공기관, 공기업 등 연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 일반계고 기업방문, 대학교방문 등 체험학습 기회 확대 - 농어촌지역 등 찾아오는 진로상담 ▶ 인성교육·학교폭력 예방 - 인성교육 강화, 부모교육 및 부모심리상담 확대 -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 피해학생 심리치료, 법률 지원 확대 ▶ 교권 및 교직원 지원 - 교권 보호 강화, 교직원 정서·심리안정 지원 -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구축 - 교직원 교육비 지원 확대 ▶ 돌봄 지원 확대 - 돌봄 대상 연령 및 운영 시간 확대 ▶ 농어촌·소규모 학교 지원 ▶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필요 ▶ 미래교육·AI·디지털교육 지원 - 노후 스마트기기 교체 - 교사용 노트북 보급 - AI, 로봇, 드론, 코딩 등 관련 수업 확대 ▶ 예술·체육 지원 확대 - 학생오케스트라(예술동아리) 육성 - 학교 운동부(교기) 지원 확대 ▶ 급식 지원 확대 - 학교 급식 질 향상,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 아침 급식, 방학 중 급식 제공 ▶ 학교 교육환경 개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노후화된 학교교육환경 개선, 학교 시설 선진화 - 통학로 안전 점검 ▶ 도서관 지원 확대 - 학교 도서관 시설 개선 - 전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 공공도서관 운영비 확대 - 전자도서관 확대 ▶ 학교 통학차량 지원 확대 ▶ 학교 통합지원센터 시설지원 예산과 사업 범위 확대 ▶ 다자녀 학생 혜택 확대 ▶ 교육지원청 비품 구입 예산 확대 ▶ 학교운영비 예산 확대 ▶ 교육청 직속기관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 공간재구조화사업 확대 및 지속 ▶ 학생 대상 경제교육 확대

분야	의견 내용
축소 및 통합을 원하는 사업	▶ 돌봄교실 예산 과다, 돌봄교실 운영 규모 재조정 필요 ▶ 행복학교 예산 일반학교 통합 운영 필요 ▶ 두드림학교·학교안 누리교실 유사사업으로 통합 ▶ 과도한 교사 시설 신축, 개축 지양 ▶ 불필요한 연수 예산 축소 ▶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보급 축소 ▶ 교원 지급 각종 강사수당(두드림강사수당 등) 축소 필요 ▶ 직속기관 운영 규모 및 예산 축소 ▶ 방과후학교 무상 지원 축소 ▶ 교육주간, 도전주간 등 불필요한 행사 축소 ▶ 인구소멸 지역(통폐합 대상 학교 등) 예산 투입 지양 ▶ 기관 및 센터 설립 지양 ▶ 전문적학습공동체 사업 축소
폐지를 원하는 사업	▶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폐지 ▶ 교복 지원 사업, 교복 공동구매 제도 폐지 ▶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폐지 ▶ 고교학점제 폐지 ▶ 남녀공학 전환 지원 예산 폐지 ▶ 참여율이 낮고 의무적 참여를 유도하는 학부모회 활동 폐지
기타 정책적 요구	▶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정책일몰제 강화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 체험학습 안전관리 부담 완화 및 학부모 민원 대응 방안 마련 ▶ 잦은 사업 신설·폐지 지양 및 연속적 사업 추진 ▶ 조속한 유보통합 추진 ▶ 돌봄사업 지자체 이관 ▶ 교육청 조직 효율화 및 학교 현장 지원 강화 ▶ 학교 규모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 ▶ 불필요한 공문·보고 및 행정업무 감축 ▶ 특수목적고 확대 및 대안 초·중학교 신설 ▶ 초·중·고 연계 평가시스템 마련 ▶ 교사 수업시수, 학급당 학생수 감축 ▶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업무통합센터 운영 ▶ 이주배경학생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 중복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통합 및 운영체계 일원화 필요 ▶ 통합사업운영비 정산 절차 폐지

4. 참여예산제 인지도 관련 응답 현황 (설문 1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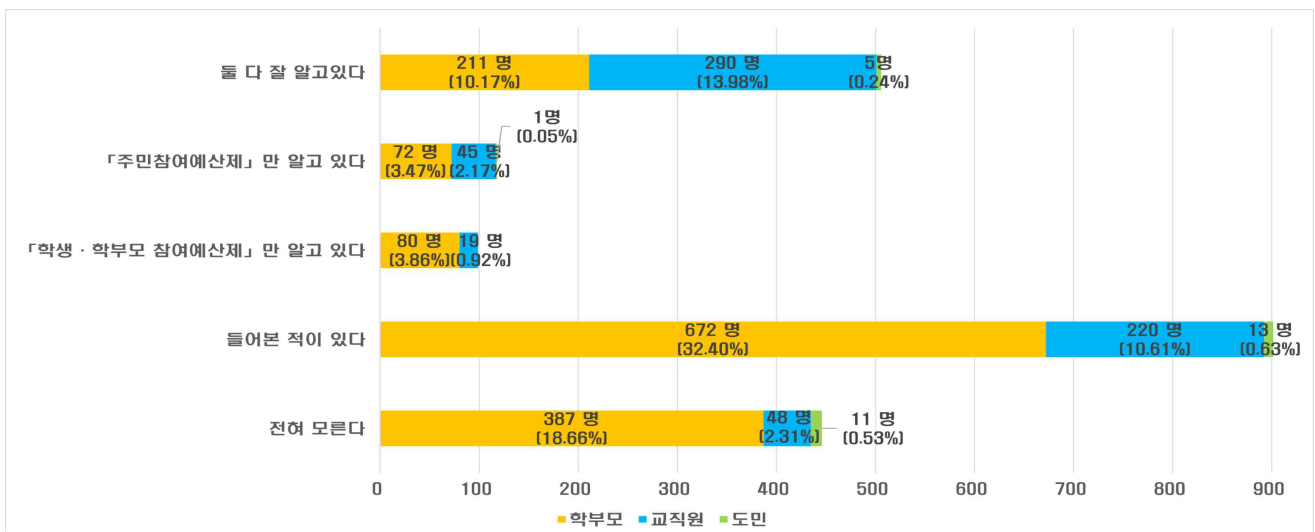
1) 총괄

- 우리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는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8.50%로 나타나 전반적인 인지도는 보통 수준으로 분석됨.
- 교육청(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가정통신문을 등을 통한 홍보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일반 도민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도민 대상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민 및 학부모 대상 대면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시간·장소 등 물리적 제약이 있어 접근성이 높은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인지도

- ❖ [표 15]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둘 다 알고 있다’는 24.40%로 ‘전혀 모른다’ 21.50%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남
- ❖ 그러나 들어본 적이 있다 는 응답이 4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일정 수준 확보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 구성원 별로 살펴보면 교직원은 ‘둘 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학부모는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인지도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표 15]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인지도 응답 현황



[학생용]

1. 학생 응답자 현황 (설문조사 3문항)

1) 총괄

- 설문조사 참여 학생 수는 731명으로 전년 214명 대비 517명이 증가하여 홍보 강화의 효과가 나타났음. 다만, 경남 전체 학생 수 대비 참여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도별 추이 : '24년 501명 → '25년 214명 → '26년 731명

2) 상세 현황

○ 학교급별 및 성별 현황

- ❖ [표 1]에 중학생의 참여 비율이 46.65%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 28.59%, 초등학생 24.76%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학생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23.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성별로는 여학생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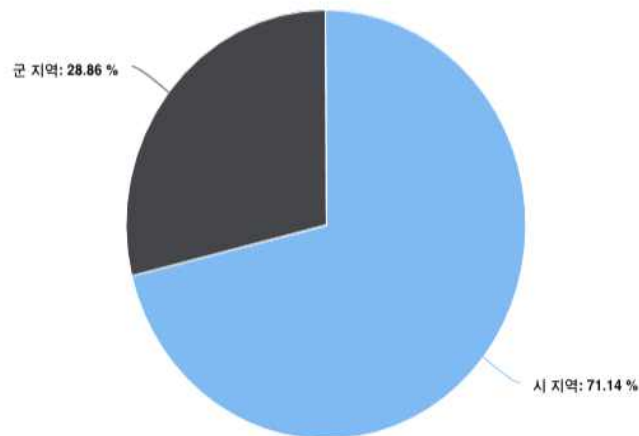
[표 1] 학교급별 및 성별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명)
남	89(12.18%)	168(22.98%)	91(12.45%)	348(47.61%)
여	92(12.59%)	173(23.67%)	118(16.14%)	383(52.39%)
합계	181(24.76%)	341(46.65%)	209(28.59%)	731(100%)

○ 거주지별 현황

- ❖ [표 2]에 따르면 거주지별로는 시 지역 거주 응답자가 520명(71.14%)이고, 군지역 거주자의 응답 비율은 211명(28.86%)으로 시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 지역별, 학교급별 응답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설문조사 참여 확대를 위해 학생들의 관심도, 설문조사 방법 및 항목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 2] 거주지별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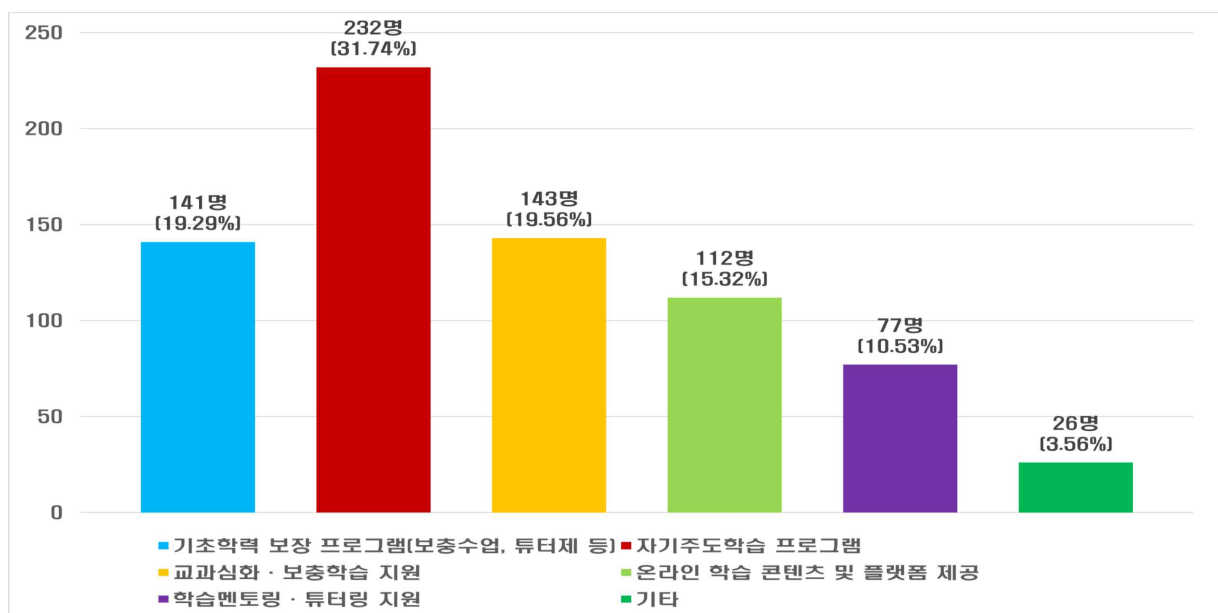
Highcharts.com

2. 예산지원 응답 현황 (객관식 7문항)

1)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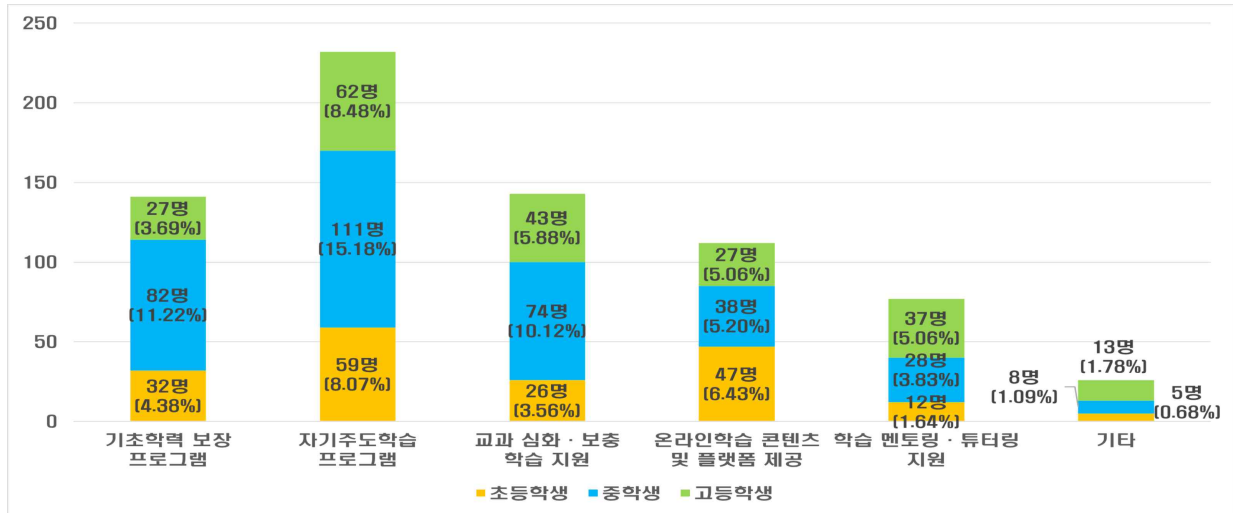
- ❖ [표 3-1]을 살펴보면 학습능력 향상을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전체의 31.7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학생들이 부족한 학습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교과심화·보충학습 지원(19.56%)’,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19.29%)’ 순으로 나타남
- ❖ 기타 응답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NCS교육 지원, 방과후 수업 지원 등이 있었음

[표 3-1]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필요 사업 응답 현황



- ❖ [표 3-2]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온라인학습 콘텐츠 및 플랫폼 제공’, 중학생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고등학생은 ‘교과 심화·보충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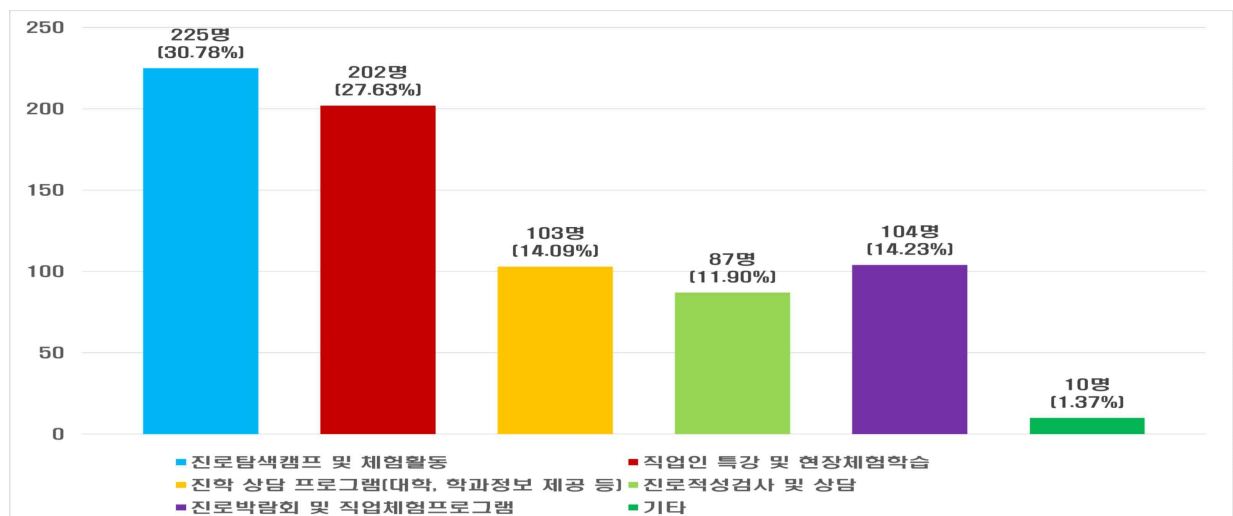
[표 3-2]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필요 사업 구성원별 응답 현황



2) 학생 진로 설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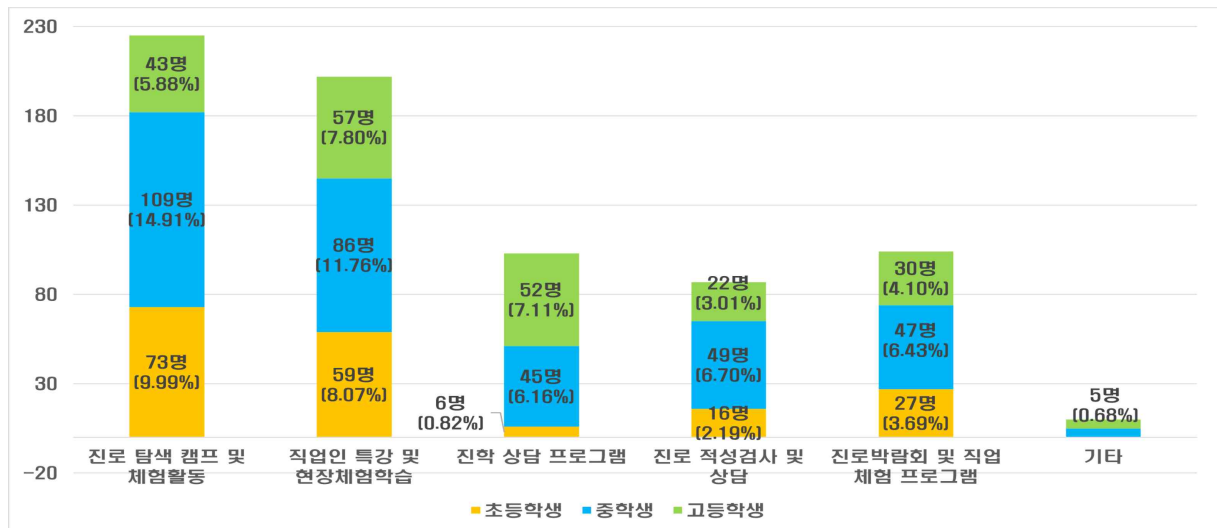
- ❖ [표 4-1]을 살펴보면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진로탐색캠프 및 체험활동’이 30.7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직업인 특강 및 현장 체험학습’이 27.63%로 뒤를 이음
- ❖ 반면 진학 상담, 진로적성검사, 진로박람회 등은 11~14% 수준의 유사한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낮게 나타남
- ❖ 이를 보면, 학생들은 단순 정보 제공이나 상담 중심의 진로교육보다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 ❖ 기타 의견으로는 기존에 있던 직업이 아닌 새로운 직업에 대한 소개, 학교 선배와의 만남 등이 있었음

[표 4-1] 학생 진로 설계를 위해 필요 사업 응답 현황



- ❖ [표 4-2] 구성원별 응답 현황을 보면 초·중학생은 '진로 탐색 캠프 및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직업인 특강 및 현장체험학습'과 '진학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교급별로 선호하는 진로 지원 사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이는 초·중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직접 경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을 선호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진로 및 진학 결정 시기에 필요한 직업 정보와 상담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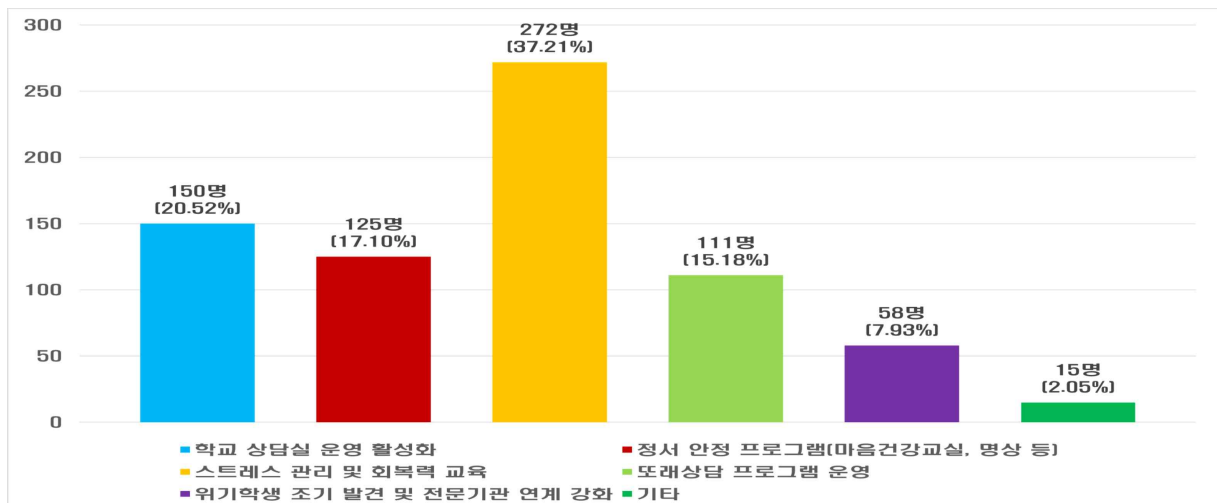
[표 4-2] 학생 진로 설계를 위해 필요 사업 구성원별 응답 현황



3) 정서 안정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서·심리 지원 필요 분야

- ❖ [표 5]를 보면 학생 정서·심리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력 교육'이 37.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다음으로는 '학교 상담실 운영 활성화(20.52%)', '정서 안정 프로그램(마음건강교실, 명상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구성원별 응답 경향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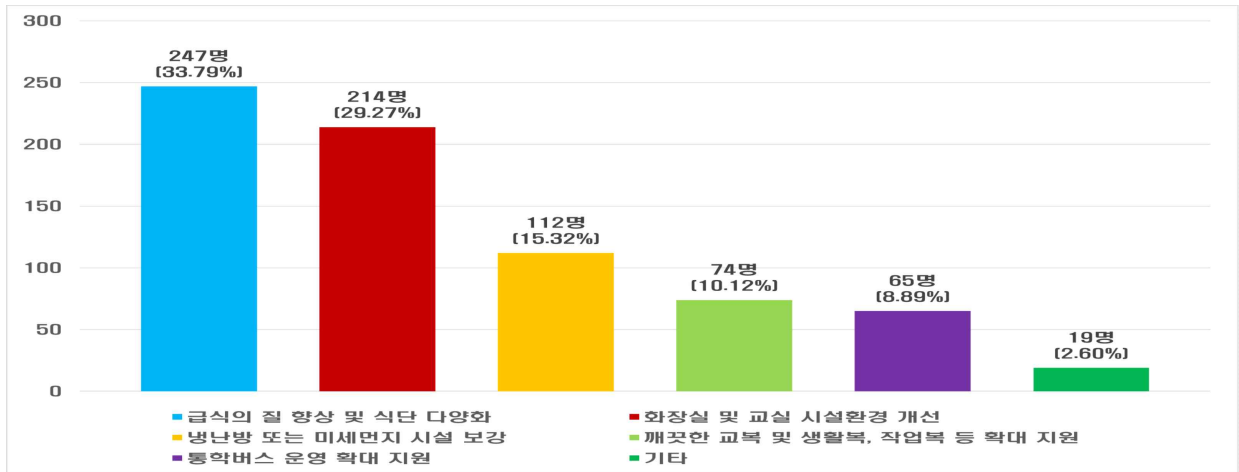
[표 5] 학생의 정서·심리 지원분야 응답 현황



4)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 ❖ [표 6]에 따르면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식단 다양화**’가 33.7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화장실 및 교실 시설환경 개선**’이 29.27%로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급식 및 시설환경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 기타 의견으로 온라인수업 활성화, 기숙사 시설 보강, 시설안전 개선 등이 있었음
- ❖ 구성원별 응답 경향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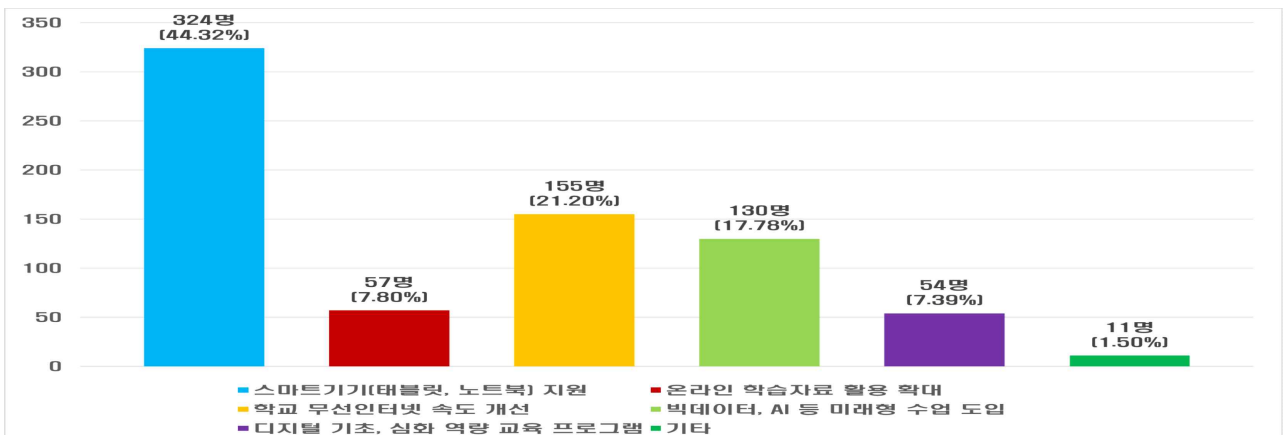
[표 6]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분야 응답 현황



5)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 디지털·미래교육 지원이 필요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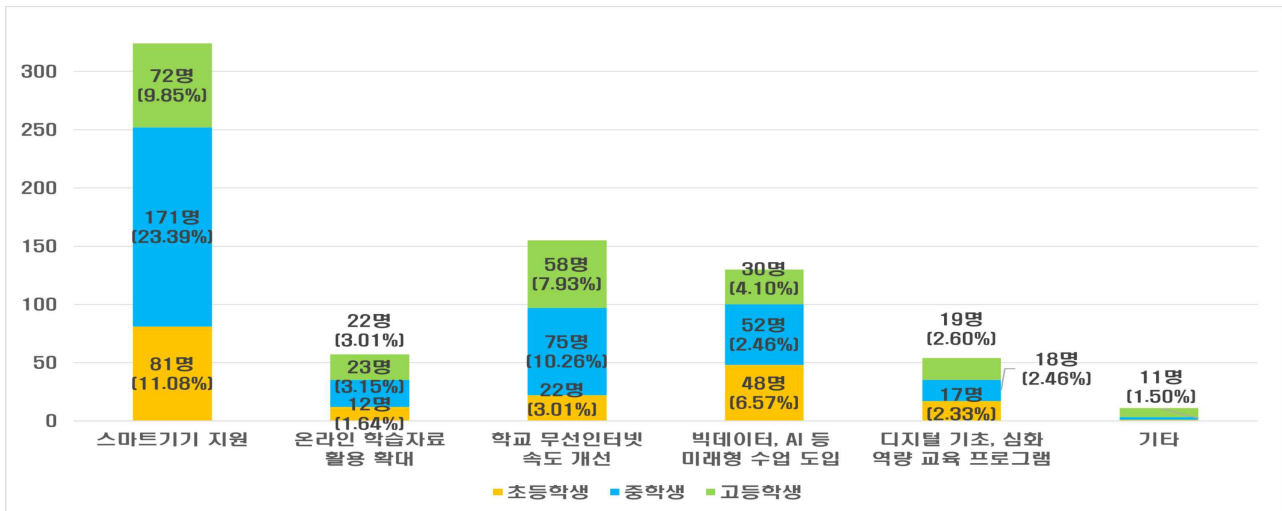
- ❖ [표 7-1]에 따르면 디지털·미래교육 지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로 ‘**스마트기기 지원**’이 44.3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학교 무선인터넷 속도 개선**’이 21.20%로 나타나 학생들은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기기 지원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빅데이터·AI 등 미래형 수업 도입**’도 17.78%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기타 의견으로는 생성형 AI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7-1] 디지털·미래교육을 위한 지원 분야 응답 현황



- ❖ [표 7-2]를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스마트기기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로 응답하였음
- ❖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룹에서는 ‘학교 무선인터넷 속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반면, 초등학생 그룹에서는 ‘빅데이터, AI 등 미래형 수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은 미래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경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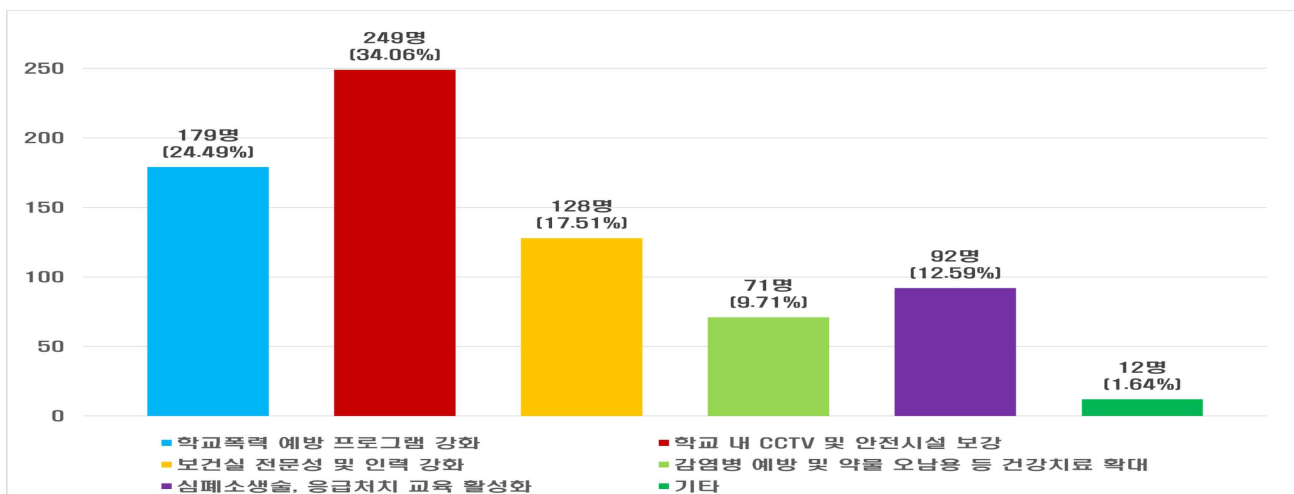
[표 7-2] 디지털·미래교육을 위한 지원 분야 구성원별 응답 현황



6)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 ❖ [표 8]에 따르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CCTV 및 안전시설 보강’이 34.06%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강화’가 24.49%로 나타남
- ❖ 이는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학교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 구성원별 응답 경향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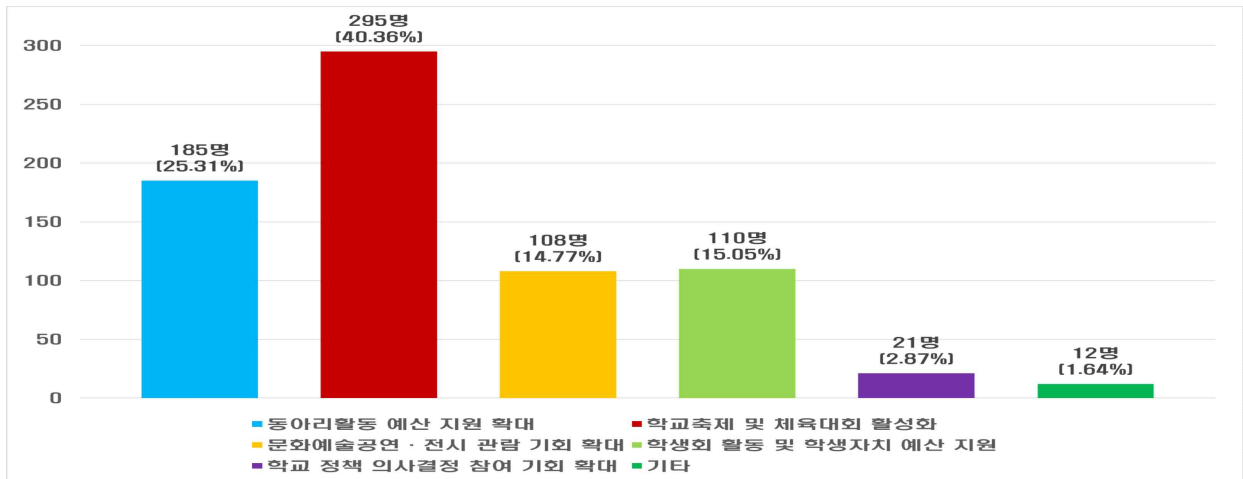
[표 8]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분야 응답 현황



7) 문화예술체육 및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

- ❖ [표 9]에 따르면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축제 및 체육대회 활성화 지원’이 40.36%로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 다음으로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확대’가 25.31%, ‘학생회 활동 및 학생자치 예산 지원’이 15.05%로 나타나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 요구도 큰 것으로 나타남
- ❖ 기타 의견으로는 안전한 활동 시설 제공, 체육 활동 확대 등이 있었음

[표 9] 문화예술체육 및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분야 응답 현황



3. 2027년 예산편성 희망사업 의견수렴 결과 (주관식 1문항, 서술식)

- ❖ 731명의 학생의 서술식 의견수렴 결과 기존 사업의 확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특히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동아리 및 학생자치 지원 확대, 진로·직업체험 등 체험학습 확대, 급식의 질 향상,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신규사업 신설 또는 확대, 기존사업 축소·통합·폐지, 기타 분야(요약)

분야	의견 내용
신설 또는 확대를 원하는 사업	▶ 학생 동아리 예산 확대 ▶ 학생회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 확대 ▶ 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시설 개선 ▶ 화장실 등 노후 학교시설 환경 개선 ▶ 학교 축제 및 체육대회 활성화 지원 ▶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 영화,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기회 확대 ▶ 온라인 수업 확대, 온라인 학교 과목 증설 ▶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및 장서 확충 ▶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공간 조성

분야	의견 내용
	▶ 체력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공간 조성 ▶ 예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 강화 ▶ 통학버스 지원 확대 ▶ 학습준비물 지원 강화 ▶ 체육활동 및 체육교육 프로그램 확대 ▶ 기숙사 시설 개선 및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 학교 CCTV 설치 확대 ▶ 학생 정신건강 지원 사업 ▶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
축소 및 통합을 원하는 사업	▶ 사이버 폭력, 도박 예방 교육 등 유사 교육활동 통합 ▶ 운동부에 대한 과도한 지원 축소 ▶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축소 ▶ 학생 수요가 적은 사업 통합·정비 ▶ 미디어 활용 전달식 교육 축소
폐지를 원하는 사업	▶ 학교 교복 폐지 ▶ 고교학점제 폐지
기타 정책적 요구	▶ 스마트기기의 성능 개선 필요

4. 참여예산제 인지도 관련 응답 현황 (설문 1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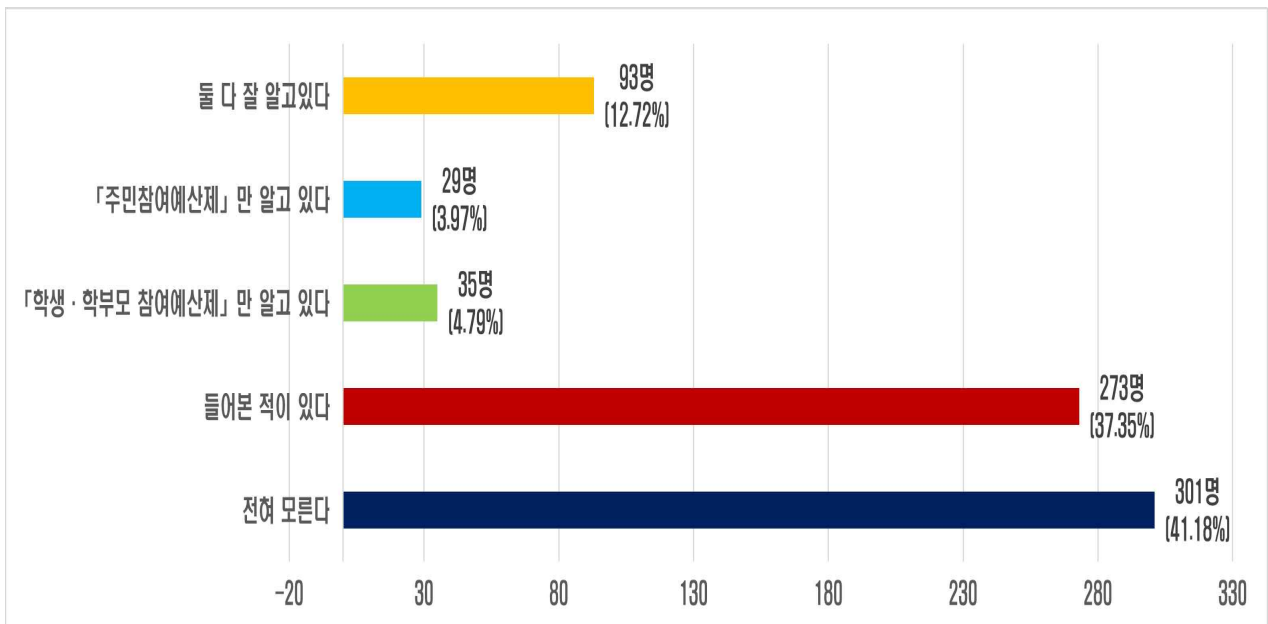
1) 총괄

- 우리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참여예산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는 78.53%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현재 교육청(학교) 누리집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학생들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여 기존 홍보 방식과 병행한 적극적인 제도 안내가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인지도

- ❖ [표 10]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둘 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2%**에 불과한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1.18%**로 나타나 학생들의 제도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 또한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37.35%**의 응답률을 보여 제도에 대한 단순 노출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표 10]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인지도 응답 현황



IV 활용 계획

- ☐ 설문조사 결과를 각 기관(부서)에 안내하여 2027년도 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 추진 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참고)자료로 활용
-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교육정책 수립 및 사업 성과평가 등 참고자료로 활용